

흙에서 탄소중립 해답 찾는다...구례군 흙 살리기 박람회

20일부터 사흘간 구례실내체육관 주제·기업·체험·전시 등 5개 부스 기후위기 대응 새 패러다임 제시

'2024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전남도와 구례군이 주최하고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탄소중립 실천과 흙 살리기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된다.

박람회 주제는 '흙을 살리고 미래를 구하는 구례'이며, 슬로건은 '생명의 근원 흙, 자연을 품은 구례를 만나다'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흙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기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농업관련 기업·청년 단체·사업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체험 등의 유익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주제관을 비롯해 기업, 토양전시, 판매·홍보, 체험관 등 5개 부스로 나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 포스터.

누어 진행된다. 주제관에서는 '생명의 근원 흙, 자연을 품은 구례'를 주제로 흙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며, 기업관에는 농업 관련 45개 기업이 참여해 친환경 농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

인다. 토양 전시관에서는 흙의 생성 과정과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판매·홍보관에서는 구례청년, 신활력플러스사업단, 구뽕사 등 지역 업체들의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관에는 요리 특강, 친환경 미로, 흙 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또 박람회장 안에 있는 구례 지리산둘레길 센터에서는 달과 흙을 주제로 한 류재춘 작가의 한국화 전시회도 함께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팔로우 이벤트도 마련됐다.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달는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를 증정한다.

한편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시켜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박람회를 통해 흙의 소중함이 널리 알려지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으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모습. <곡성군 제공>

곡성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매진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검사비·산후조리비 지원

곡성군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곡성군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모들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각종 검사비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으로 '맘 편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격려하고 있다.

먼저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임신부 등을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 검진차량을 활용해 초음파 검사와 기형아 검사 등 무료 진료를 매월 2회 곡성군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한다.

산모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생아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 임신 희망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의 정자정밀형태검사와 등 진찰료 및 검사비를 여성과 남성 각각 최대 13만원, 5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둔 여성에 한하여 사업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임신부 건강관리용품도 대우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임신부 건강관리용품도 대우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임신부 건강관리용품도 대우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장려금을 첫째 신생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 신생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의 출산율은 0.55 정도를 기록해 전국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다"며, "곡성군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360-8952)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린 제1회 여수국제 웹페스트 어워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세계의 시선 여수로'...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 성황

GS칼텍스 예울마루 등서 4일간 76개국 1306편 출품 53개 수상

여수시가 GS칼텍스 예울마루와 CGV여수우천점 등에서 4일간 열린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가 성황을 이뤘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영미·유럽·아시아 등 76개국 1306편의 작품이 출품된 여수국제 웹페스트에서는 경쟁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3개 부문 53개 수상작을 선정하고 폐막했다. 시가 자체 제작한 9번째 웹드라마 '하멜'은 본선

특별상을 받았다. 이어 ▲웹콘텐츠 부문 한국의 '대대장손' ▲숏폼 부문 한국의 '행권의 도시' ▲뮤직비디오 부문 스페인의 'Howl' (하울) 등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웹페스트 어워드 행사 중 여수시는 미국(world webfest), 영국(British web Awards), 브라질(Rio webfest Awards), 슬로바키아(azyl) 등 세계 유수의 웹페스트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상생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킹도 탄탄히 구축했다.

영국의 웹콘텐츠 제작자 Annie Qing Han은

"대한민국 중소도시에서 이뤄낸 완성도 높은 행사와 특히 여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놀랐다"며 "수많은 작품 중 저의 작품이 후보에 올라 영광이었고, 좋은 추억으로 오래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수상자들에게 드린 트로피는 여수의 특색을 살려 하멜등대와 시조인 갈매기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경을 오가며 소비되는 미디어 추세에 발맞춰 국내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국제 해양관광 유망도시 브랜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의회 쌀 재배농 경영난 타개 정부·국회에 해결책 촉구 건의문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9일 제329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수확기 쌀값 폭락과 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쌀 재배 농민들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원 이상 수준 보장을 위해 재고 물량 시장격리와 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 조정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 ▲쌀 수급 안정 대책 등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표 발의자인 전명숙 의원은 "쌀 재배 농가 경영안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수입쌀의 가공·주정용 비율이 너무 높아 국산 쌀의 구조적 과잉을 부추기는 결과, 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 조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보호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의회,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흥=주강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남산 로타리클럽,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침낭쿨 제거 등 거주환경 정비

원예 활동 텃밭 프로그램도 재개

국제로타리 3610지구 순천남산 로타리클럽(회장 임인택) 회원들이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참샘마을을 찾아 환경 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남산로타리클럽 회원들은 무더위와 장마로 진행하지 못했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원예 활동인 텃밭 프로그램의 재개를 위해 시설 등을 정비했다.

또 포크레인과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해 침낭쿨 제거, 보행에 방해되는 나무와 돌 제거, 건물 외벽

바닥의 이끼 세척, 보행로 바닥 시멘트 보수 등의 작업도 진행했다.

임인택 순천남산 로타리클럽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힘을 모아 참샘마을의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샘마을 시설장 직무대리 이상심씨는 "순천남산 로타리클럽의 도움으로 참샘마을의 외부 환경이 개선돼 보다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빛그린 광양매실', 10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상

광양시의 대표적 특산물인 '빛그린 광양매실'이 10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을 차지했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올해로 18회째인 '202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부문별 브랜드를 선정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대상 선정은 브랜드 보조인지도·품질 선호도 및 만족도·향후 사용 의향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로 1차 대표브랜드를 뽑고, 이후 경영전략·마케팅·재무 등의 세부 평가항목을 더한 뒤 심사위원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상을 수여한다.

광양시는 이번 심사에서 지역특산물-매실 부문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10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김철우 보성군수와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성군의회의원들이 함께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했다.

보성군, 지역 국회의원과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보성군은 추석을 맞아 지난 7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장보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철우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유통환경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상인들을 격려하고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장보기를 진행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추석맞이 장보기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부여함은 물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정취해 전통시장의 안정적인 매출액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